

체계적으로 포장지식 습득

배현석 / 롯데중앙연구소 과즙탄산음료담당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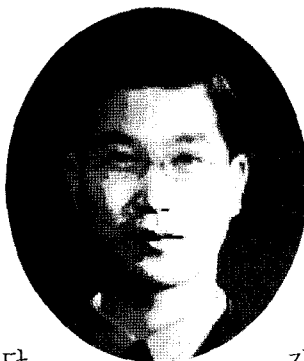
(사)한국포장협회는 제10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62명의 포장기술관리사를 배출했다.

지난 해 9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 제10기 포장 기술통신교육에서는 배현석연구원(롯데중앙연구소 과즙탄산음료담당)이 최고 우수 성적으로 수료했으며, 홍명현 교수(청강문화산업대학)와 신일지 학생(순천청암대학 포장과 1년)이 공동 2등으로, 석현지 학생(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4년)이 3등으로 선정됐다.

이번 포장기술관리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으로 수료한 배현석 연구원은 “교재를 충실히 보고 기타 관련 자료를 열심히 찾으려 했던 노력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롯데중앙연구소 음료팀에서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배 연구원은 업무 특성상 음료 내용물을 저장할 수 있는 포장용기에 대해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포장기술관리사에 응하게 됐다.

포장기술관리사를 준비하면서 동영상 강의 또는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는 배 연구원.

그는 “11주라는 짧지만 긴 시간 동안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과정을 통해 포장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다 가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포장산업의 매력은 내용물의 안전한 보관과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이라는 배 연구원은 “포장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방안이 제시되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포장용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장기술통신교육을 수료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배 연구원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

포장산업 중요성 알릴 터

홍명헌 / 청강문화산업대학 물류유통정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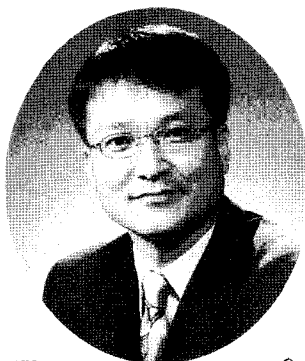
제10기 포장기술통신교육을 공동 2등으로 수료한 청강문화산업대 홍명헌 교수는 “처음 통신교육을 시작할 했을 때는 막막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상적이고 매우 협소하게 알던 포장기술 지식을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접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현재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물류유통정보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홍명헌 교수는 학과에서 물류관리, 물류정보시스템 등 물류관련 강의를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류유통정보과 교과과정에 포장론이 개설 되면서 체계적인 포장지식이 필요했던 홍 교수는 “전임교수가 포장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학과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포장기술관리사에 응하게 됐다”며 “(사)한국포장협회가 10회에 걸쳐 많은 교육생을 배출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장 교육기관임을 알고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주 새로운 포장 지식을 알게 되는 즐거움 속에서 통신교육을 준비했다.

홍 교수는 “통신교육과정에서 느끼는 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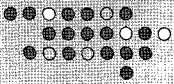
금함을 해결하기 위해 질의 및 응답 과정과 ‘포장 전문 용어집’을 핸드북 크기로 학습자에게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일부 물류기업은 포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와 포장은 분리할 수 없는 협업산업이며, 물류가 발전하려면, 포장이 발전해야 하고, 포장이 발전하면 물류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리라 여겨집니다. 포장은 늘 소비자와 함께한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포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없는 제품은 생산되지 않고, 생산한 제품은 포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홍 교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포장 지식을 많이 습득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후학들에게 포장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전달하여 물류산업과 포장산업이 서로 Win-Win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포장산업을 위해 매진할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항만물류 포장전문인 될 터

신일지 / 순천청암대학 물류패키징과 1년

“첫 시작부터 우수한 성적보단 11주 동안 꾸준히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성적에 더 기쁘고, 뜻밖의 결과에 그동안 꾸준히 했던 시간들에 보람을 느낍니다.”

제10기 포장기술관리사를 공동 2등으로 수료한 순천청암대학 신일지 학생은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적극 추천해주신 교수님과 포장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청암대학 물류패키징과 1년에 재학중인 신 학생은 “담당교수님의 적극 추천으로 포장기술관리사를 접하게 됐다”며 “포장학의 생소함도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포장기술관리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은 결과 도전해 볼 만한 교육이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통신교육이다 보니 꾸준히 답안을 보내야한다는 점이 힘들었다는 신 학생은 “대학생이라 학교시험과 다른 자격증 준비로 여러 가지를 병행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덧붙여 그녀는 “포장기술관리사 교육과정



은 포장 전공 전체적인 교육내용이 대부분 공학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이 소화해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좀 더 쉬운 용어 해설 과정과 포장방법에 있어서 3D매체, 멀티미디어 등을 통한 포장학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했다.

포장산업은 물류 유통분야에 있어 커다란 변혁을 가져 올수 있는 블랙홀 같은 존재라는 신일지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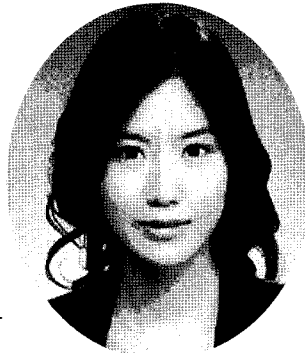
“포장기술관리사 수료를 밑거름 삼아 포장학에 더 관심을 갖고, 항만물류의 포장전문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포장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는 포장산업체는 너무 영세하고 업무의 영역이 없어 전공을 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흡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포장학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포장학문도 알리고, 전공도 살려 항만물류의 포장전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목소리 나는 그녀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포장에 대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

석현지 /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4년

제10기 포장기술통신교육을 3등으로 수료한 연세대 석현지 학생은 “11주 동안 그동안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한 것 뿐인데, 3등이라는 좋은 결과도 함께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신교육을 벗어나 사이버 강좌를 개설하는 등 11주 동안 한번정도 기회를 마련하여 학습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개설하여 학습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4년에 재학중인 석현지 학생은 2009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녀는 마지막 학기를 전반적인 포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 포장기술관리사에 응하게 됐다.

석 학생은 “11주라는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커리큘럼의 구성과 내용이 탄탄하다고 판단, 포장편람을 따로 읽지 않아도 될 정도의 훌륭한 내용이 담긴 교재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며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교재를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는 그녀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이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현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의 업데이트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고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포장학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는 석현지 학생. 그녀는 “포장관련 업계와 포장학과와의 인재육성 및 제품개발 아이디어 공모, 인턴쉽 프로그램과 같은 긴밀한 인적 및 지식 협력의 기회가 마련돼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포장 인재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 많은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포장기술관리사 합격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정한 포장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석현지 학생은 “향후 포장업계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은 물론 NT, BT, IT 기술을 접목시켜 친환경적이며 획기적인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녀의 도전이 더욱 기대된다. ☺